

## 치료프로그램이란

환자가 재활 기관에 입원을 허가받게 되면 각종 검사를 받고 병력을 설명해야 한다. 그리고 다시 필요에 따라 X-선 검사와 뇌혈류 검사도 받는다.

이러한 절차는 이후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것이며, 환자의 병의 상태를 보다 잘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.



### 1. 이학요법부에서 2~3 단위의 훈련

- a. 이학요법사가 행하는 개인훈련으로써 장애가 있는 수족의 운동,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의 보존, 가능한 근력의 보강 등을 통해서 수족을 다시 쓸 수 있도록 가르친다.
- b. 보행훈련
- c. 몸 전체를 움직이게도 하고 신체 근육운동을 위한 매트운동
- d. 저항운동을 1단위. 충분히 개선되어진 근력의 증강을 위해 보조원이나 보조 기구를 사용한다.
- e. 일상생활의 동작훈련. 여기서는 침대 위에서의 운동, 그 반대의 이동작용, 화장실 사용, 목욕, 세수, 면도, 의복탈·착용법 등 많은 것을 가르친다.

### 2. 1~2 단위의 작업요법

필요에 따라 기능을 높이기 위한 가벼운 작업, 어려운 작업 또는 가사훈련 등을 한다. 퇴원할 때가 가까워지면 직업을 갖기 전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.

### 3. 언어 훈련

언어장애를 가진 환자를 위해 매일 1단위 치료  
(1단위 : 약 30분)

정기적으로 스텝들이 모여  
환자의 상태가 어느 정도  
좋아졌는지를 재평가합니다.

